

박라탄, 16강을 부탁해

(박은선)

여자월드컵 대표팀 오늘 오전 8시 스페인과 3차 예선

발목 부상에 1·2차전 결장...윤덕여 감독 "선발 출전"

한국, 승점 1점...스페인전 반드시 이겨야 16강 희망

2004 U-19 월드컵편입팀 조별리그서 스페인 상대 골 경험

드디어 '박라탄' 박은선(로시안카)이 출격한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오전 8시 캐나다 오타와 외의 랜스다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E조 최종전에서 스페인과 물리칠 수 없는 일전을 펼친다.

승리한 팀에만 16강행 티켓이 주어지는 벼랑끝 승부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감독은 "박은선의 선발 출전을 생각하고 있다"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은선은 '에이스' 지소연(헬시)과 함께 한국 여자 축구가 낳은 최고의 공격수로 꼽혀왔다. 182cm에 74kg의 당당한 체격을 갖춘 그는

스웨덴의 장신 공격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박라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2년 전 한국이 처음 출전한 2003 미국 월드컵에서 팀의 3전 전패를 지켜만 봐야했던 박은선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공격형 미드필더 지소연과 함께 한국을 사상 첫 승리와 16강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3월 키프로스컵에서 다친 왼쪽 발목과 소속팀에서 다친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가시지 않아 지난 1, 2차전에서 그라운드를 전혀 밟지 못했다.

그가 벤치에 앉은 사이 한국은 1무 1패를 기록하며 조 최하위로 처진 상황. 물불을 가릴 여유가 없어진 윤 감독이 드디어 박은선 카드를 꺼내든다.

박은선은 스페인을 상대로 골맛을 본 좋은 기억이 있다. 2004년 U-19(19세 이하) 여자 월드컵편입팀 조별리그 경기(1-2 한국 패)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후반 27분 추격골을 터뜨렸다. 당시 스페인 전열에 포진했던 베로니카 보케타, 나탈리아 파블로스 등이 현재 A대표팀의 주전이다.

2경기 결장으로 실전감각이 다소 떨어졌을 박은선이지만 익숙한 상대를 만난 만큼 적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박은선이 선발로 나가더라도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며 신뢰를 보였다.

박은선이 11년 전 기억을 되살려 골까지 터뜨리고 한국을 16강까지 이끌어 한국 축구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선

슈틸리케호 시계 '동아시아컵'에 맞췄다



슈틸리케 감독

8월 中·日·北 4팀과 대결...월드컵 예선 미안마에 2-0 승

동남아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슈틸리케호가 이제 2015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아컵) 우승을 겨냥한다.

율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지난 8월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11일 말레이시아 사알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평가전에서 3-0 승리를 맞춘 뒤, 16일 태국 방콕에서 미안마를 상대로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G조 첫 경기를 2-0으로 이겼다.

고온다습한 혹독한 환경에서 2연승을 거둔 태극전사들은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해산해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슈틸리케호의 다음 일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2015 동아시아컵이다. 이번 동아시아컵에는 '속명의 라이벌' 일본과 북한, 중국 등 4개 팀이 나선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3년 동아시아컵에서 2무1패의 부진한 성적 속에 3위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 때문에 슈틸리케호는 동아시아컵 우승으로 2년전 아쉬움을 달래는 동시에 9월 3일 국내에서 열리는 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G조 두 번째 경기를 위한 상승세를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 캘린더'에 속하지 않아 유럽과 선수들은

소집하기 어렵다. 슈틸리케 감독은 K리그,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자원을 활용해 대표팀을 꾸려야 한다.

동아시아컵에서 관심을 끄는 경기는 일본과의 라이벌전이다. 8월 2일 중국과 먼저 맞붙는 슈틸리케호는 사흘 뒤인 8월 5일 일본과 2차전에서 맞붙는다. 일본전은 국민 정서상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만큼 슈틸리케 감독도 신중하게 대표팀 명단을 꾸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한일전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에 2-4 패배의 수모를 안겨준 알제리의 바히드 할릴호지치 감독이 일본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만큼 태극전사들로서는 설욕전을 펼칠 기회다.

동아시아컵이 끝나면 슈틸리케호는 본격적인 월드컵 2차 예선 행보를 이어간다.

9월 3일 라오스와 월드컵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대표팀은 9월 8일 레바논과 원정으로 2차 예선 3차전에 나선다. 대표팀은 이어 10월 8일 쿠웨이트 원정으로 4차전을 치르고, 11월 12일 미안마와 홈에서 4차전을 펼친 뒤 11월 17일 원정으로 라오스와 6차전에서 만난다. 이후 내년 3월 24일과 29일에 각각 레바논과 쿠웨이트를 홈으로 불러들여 7, 8차전을 잇달아 치르는 것으로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호랑이 야구 "ZQ를 높여라"

(잔머리 지수)



선수들 코치·감독역 하며 생각하는 야구 훈련 틈새 노려 도루·짧은 중계 플레이로 수비력 '업'

"ZQ를 높여라!"

KIA 타이거즈는 2015 시즌을 시작하면서 리빌딩을 이야기했다. '타이거즈 왕조' 재구축을 위해 차근 차근 전력을 다지고 키워가겠다는 것이 구단과 벤치의 생각이다. 변화의 시간을 맞아 선수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많다. 그 중 하나가 'ZQ 높이기'다. IQ, EQ도 아닌 ZQ. '잔머리 지수'라는 것이 코칭스태프의 설명이다.

KIA는 빠지지 않는 4강 후보였지만 올 시즌은 하위권 후보로 꼽혔다. 야수진의 두 축 안치홍·김선빈이 군입대로 빠졌고, 허약한 볼펜·백업중에 화려한 부상병들로 약체로 분류된 것이다. 코칭스태프 역시 냉정하게 하위권 전력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구공은 둥글다'고 말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ZQ다. 허를 찌르는 '잔머리'로 부족한 전력을 채워 승부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야구를 위해 김기태 감독은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창의력 교실'을 열었다.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ZQ향상을 위한 위명업을 했다. 질문의 주제는 다양했다. 야구는 기본이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선수들의 몸과 머리를 동시에 움직였다. 스프링캠프에서는 선수들이 직접 감독·코치가 되어 PFP(Pitcher Fielding Practice) 훈련을 했다.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의 자리는 관람석. 선수들이 알아서 상황을 설정해 훈련을 진행하면서 어떤 게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배워갔다.

아직은 코칭스태프의 손길과 충고가 필요한 선수들이다. 하지만 그만큼 올 시즌이 흥미롭고 재미있

다는 코치들이다.

김민호 수비 코치는 "우리의 목표는 코치들이 없어도 알아서 하는 선수들을 만드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알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경기를 하면서 상대를 속일 줄도 알아야 한다. 아직은 우리 선수들에게 그런 ZQ가 부족하지만 좋아지고 있다. 가르칠 부분이 많아서 흥미롭다"고 말했다.

ZQ가 조용히 KIA의 전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상대의 발을 묶는 업그레이드 된 수비에도 ZQ가 있다. 올 시즌 KIA 선수들은 상황에 맞게 짧게 짧게 중계 플레이를 하면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공을 기다리는 수비진의 ZQ도 눈에 띈다. 부산한 움직임 없이 상대 주자의 눈을 속인 뒤 벼락같이

포구를 해 태그를 하는 장면이 종종 눈에 띈다.

16일 LG와 원정경기에서는 최용규의 주루 ZQ가 발휘됐다. 3-0으로 앞선 7회 좌전 안타로 출루한 최용규는 김호영의 땅볼로 2루에 간 뒤 3루 도루에 성공했다. 기회를 노리던 최용규는 상대가 방심한 사이 3루로 내달렸다. 이후 2사 아웃 상황에서 포수가 공을 쫓는 틈을 타 홈을 밟으며 팀의 4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이어진 7회말 김병현이 박용택에게 3점포를 얻어맞는 등 경기가 4-3으로 끝나면서, 최용규의 도루는 팀 승리를 부른 값진 도루가 됐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만큼 채울 부분이 많은 ZQ. '호랑이 군단'이 진화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00l@kwangju.co.kr